

## SK하이닉스 자회사 '행복모아' 설립...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 앞장

등록 2017.07.11 17:55:16



【청주=뉴스시스】김재광 기자 = SK하이닉스(대표 박성욱)는 11일 청주시청에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2017.07.11.(사진=SK하이닉스 제공) [photo@newsis.com](mailto:photo@newsis.com)

【청주=뉴스시스】김재광 기자 = SK하이닉스가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고용에 나선다.

SK하이닉스(대표 박성욱)는 11일 청주시청에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승훈 청주시장, 장동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장, 이상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직업능력개발원장, SK하이닉스 이일우 청주경영지원실장이 참석했다.

SK하이닉스는 장애인 고용을 위해 청주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내 자회사인 장애인 표준사업장 '행복모아'를 건설하고 있다.

이 회사는 방진 의류 제조나 세탁, 클린룸(Clean Room) 부자재에 대한 제조 및 유통 사업을 맡는다.

오는 10월에 완공될 예정인 '행복모아' 사업장은 올해 80여 명을 채용한다. 내년 130명을 고용한 뒤 오는 2022년까지 170명을 뽑는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kipoi@newsis.com](mailto:kipoi@newsis.com)